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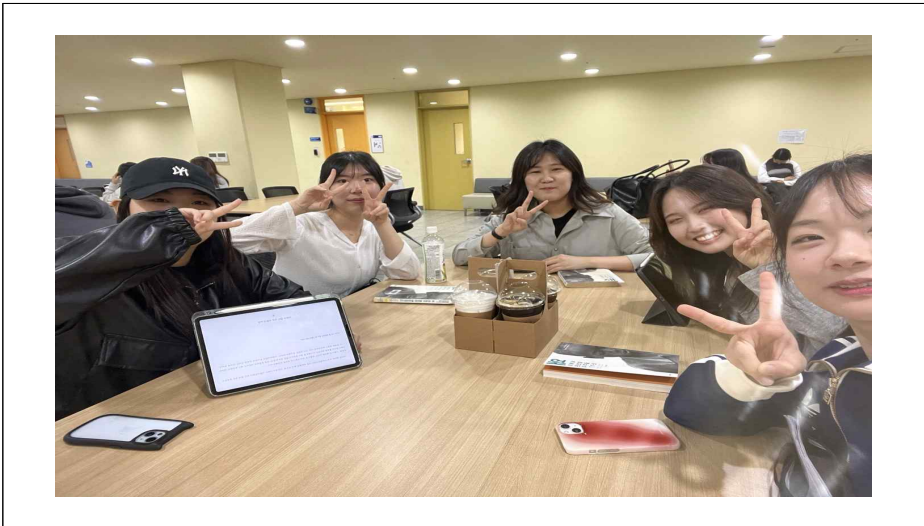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사과 속 책벌레

	일시	9 월 26 일 19 : 30 상상관 2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
		박서영(2431185)	○
		정소희(2331178)	○
		최윤미(2331244)	○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8p. ~ 74p.
1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730 1144 1251 1178">[좌측부터 최윤미, 정소희, 서기현, 박서영]</p> <p data-bbox="491 1189 663 1223">토론내용 작성</p> <p data-bbox="491 1234 1493 1435">다같이 이 책을 읽고 각자의 궁금한 내용이나 토론할 내용에 대해 찾아왔다 <정소희> 현재 기아 인구는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왔다. 기아 인구가 코로나 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5억8130만 명)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쟁과 경기침체, 기후 위기 등을 꼽았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아가 늘어났다.</p> <p data-bbox="491 1447 1493 1603"><서기현> 기아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나는 기아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입장은 기아 문제를 단순한 자원의 부족으로 보지 않으며, 불평등한 자원 분배와 경제적, 정치적 결정이 기아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491 1615 1493 1816"><박서영> 국제 기구들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 국제 기구들이 기아 해결보다 경제적 이익과 권력 구조 유지에 집중하고, 불평등한 자원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 국가 간 이해관계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인 협력과 대규모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491 1827 1493 2063"><최윤미> 개인 기부는 기아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생각해 봤다. 개인 기부는 기아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기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일부일 뿐이다.</p>	

일시	10월 10 일 13 : 30 상상관 2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
	박서영(2431185)	○
	정소희(2331178)	○
	최윤미(2331244)	○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75p. ~ 117p.
----	-----------------------	---------------------



[좌측부터 정소희, 서기현, 교수님, 최윤미, 박서영]

2주차

토론 내용

토론내용 작성

주제 : 미디어의 기아문제 보도가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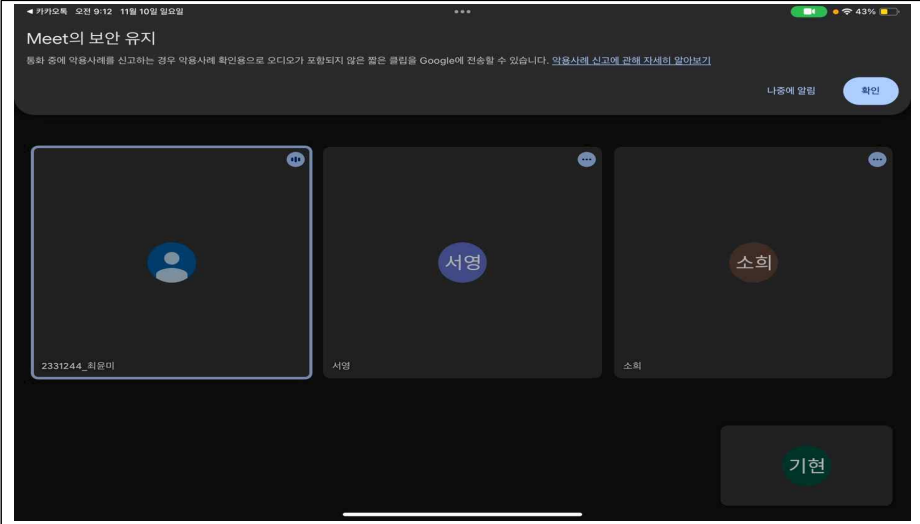
- 미디어 보도 외에 기아문제를 알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정소희> 미디어는 기아 문제의 시급한 상황을 보도하여 공감과 행동을 유도하지만, 반복적인 보도는 동정심 피로를 초래하고, 감정적으로 구성되어 문제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단기적 도움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일회성 기부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관심을 끄는 보도를 넘어,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아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험형 교육 캠프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력하거나 참여형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하면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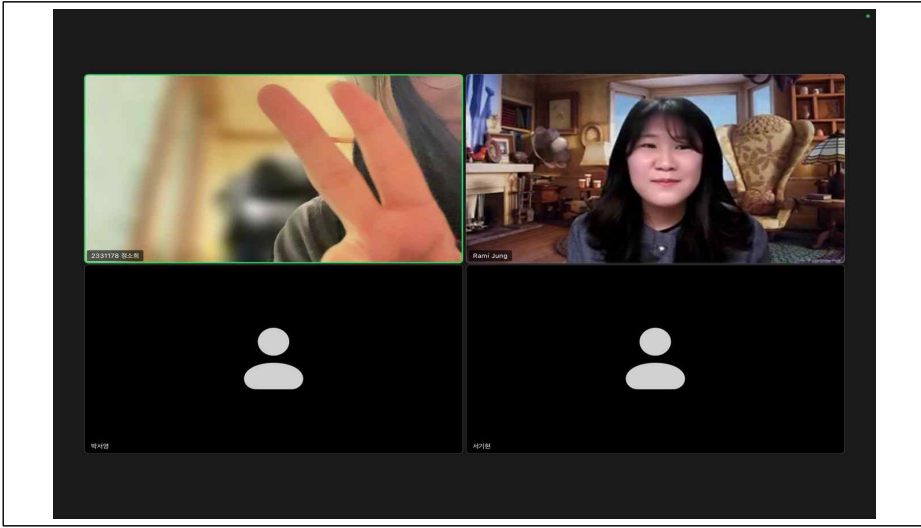
<최윤미> 기아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지만, 반복적인 보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익숙함의 역설로 인해 기아 문제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보도는 문제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보도 외에 기아문제를 알릴 방법은 기아 문제를 알리는 방법으로 AI 기반의 가상 아바타를 활용한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앱에서는 사용자들이 기아 상태에 있는 어린이나 가족의 아바타를 돌보며, 물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상적인 행동을 완료해야 한다. 아바타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사용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2주차	일시	10월 10 일 13 : 30 상상관 2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
		박서영(2431185)	○
		정소희(2331178)	○
		최윤미(2331244)	○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75p. ~ 117p.
토론 내용	<p><서기현> 미디어의 기아 문제 보도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순 보도를 넘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기아 문제의 인식 캠페인과 기부 활성화를 연결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도가 개인의 행동을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p> <p>기아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캠페인, 커뮤니티 이벤트, 예술 및 창작 활동 등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커뮤니티 이벤트로 기부와 관심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람들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부나 봉사로 이어지도록 돕는다.</p> <p><박서영></p> <p>기아 문제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반복적이고 유사한 주제로 이루어져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아 문제를 다룰 때, 처음에는 기아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아 문제를 전 세계적인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를 국내와 연관 지어 나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p> <p>기아 문제를 알릴 다른 방법으로 요새는 유니세프 등 다양한 복지 재단에서 꾸준히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같은 경우 1)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즐겨하는 만큼 sns를 이용해서 기아 문제를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p>		

3주차	일시	11 월 10 일 09 : 00 비대면 구글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
		박서영(2431185)	○
		정소희(2331178)	○
		최윤미(2331244)	○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118p. ~ 171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최윤미, 박서영, 정소희, 서기현]</p> <p>토론내용 작성</p> <p>주제 : 전문 기부단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부 단체는 어떤 것이 있나? - 기부할 때 어떤 것을 찾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을까?</p> <p><최윤미></p> <p>사랑의 달팽이</p> <p>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보청기 지원을 통해 소리를 찾아주고, 소리를 듣게 된 아이들의 사회 적응 지원과 대중의 인식 개선 교육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단체이며, 국세청 지정 공익법인 공시 및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책무성,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4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개인의 기부는 기아 문제 해결에 있어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되며, 기아 구호 단체들은 이 자금을 통해 필요한 음식과 물자를 제공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부금의 일부가 운영비나 중간 경비로 사용되거나, 일부 단체에서 기부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부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p>		

3주차	일시	11 월 10 일 09 : 00 비대면 구글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
		박서영(2431185)	○
		정소희(2331178)	○
		최윤미(2331244)	○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118p. ~ 171p.
토론 내용	<p><정소희> 소규모 기부 단체들은 특정 지역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세밀한 접근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지역 푸드뱅크는 기아 문제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고, 농업 지원 단체들은 농민의 자립을 돕는다. 한국 내에서는 공익 캠페인이나 청소년, 노인 복지에 집중하는 소규모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단체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특정 목적에 맞는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p> <p>기부 단체를 선택할 때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는 단체를 선택하고, 한국가이드스타 같은 공익법인 평가기관을 통해 투명성, 재무 안정성, 책무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활동 결과와 기부금의 실제 영향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연관성이 높은 단체를 선택하면 기부금이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p> <p><서기현> 프렌치 푸드뱅크 네트워크: 지역 식품 구호를 통해 프랑스 내 소외 계층을 지원한다. 알바드라 재단: 환경과 보존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한다. 프리덤 프롬 헝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아 완화 단체로, 교육과 자원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p> <p>이들 단체는 작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지역과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p> <p>기부 단체를 평가할 때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과 자금 분배 비율을 확인하고, 단체의 미션과 목표가 본인의 기부 목적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GuideStar, Charity Navigator, GiveWell 같은 평가 플랫폼을 통해 단체의 운영 효율성과 임팩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p>		

3주차	일시	11 월 10 일 09 : 00 비대면 구글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
		박서영(2431185)	○
		정소희(2331178)	○
		최윤미(2331244)	○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118p. ~ 171p.
토론 내용	<p><박서영> 밀알 복지 재단이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1992년에 설립된 복지 단체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립 지원, 교육,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세상을 밝히는 작은 밀알'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기부 단체를 선택할 때는 먼저 단체의 목표와 사명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부 외에도 자원봉사나 캠페인 참여 등의 기회가 제공되는 단체를 고려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기부자들의 평가와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p>		

4주차	일시	11 월 14 일 12 : 30 비대면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O
		박서영(2431185)	O
		정소희(2331178)	O
		최윤미(2331244)	X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172p. ~ 201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위로부터 정소희, 교수님, 박서영(카메라 없는 노트북), 서기현(카메라 없는 노트북)]</p> <p>토론내용 작성</p> <p>주제 : 기부단체를 정하는 우선 순위는 무엇일까?</p> <p>개인이 기부한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p> <p><최윤미> 1. 투명성 보고서와 관리비 비율을 살펴보고 2. 단체가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를 공개하는지 3. 지속 가능한 해결책 제공해주는지 4. 외부 평가 및 인증을 받은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5. 기부금 활용에 있어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인지 살펴보기</p> <p>개인적으로 기부한 경험은 학교 시절, 대전 대흥동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후 기아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동참했으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대학에서도 기부 활동을 했지만, 그 돈의 사용처나 기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기부는 단순히 선행을 한다는 느낌으로만 여겼다.</p> <p><정소희> 기부할 때는 가장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분야와 단체의 주된 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이 직접적인 목적에 사용되는지, 행정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단체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p>개인적으로 기부한 경험은 학창 시절, 빵 저금통 캠페인과 쌀 스티커 구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나눔의 의미와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캠페인의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기부금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아쉬움을 느꼈다.</p>		

4주차	일시	11 월 14 일 12 : 30 비대면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서기현(2231003)	O
		박서영(2431185)	O
		정소희(2331178)	O
		최윤미(2331244)	X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172p. ~ 201p.
토론 내용	<p><서기현> 기부 단체를 선택할 때는 우선 단체의 미션과 목표가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과 운영비, 사업비 비율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Charity Navigator나 GuideStar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단체를 우선 고려하고, 기부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와 단체의 장기적인 효과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목표로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기부 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부한 경험은 학교에서 뱃지를 직접 디자인하여, 이를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뱃지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기부 활동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병원에 기부되어,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p> <p><박서영> 기부 단체를 선택할 때는 먼저 단체의 목표와 미션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체를 선호하며, 기부 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부 가능 금액과 시간에 맞는 단체를 고려해야 한다.</p> <p>개인적으로 기부한 경험은 초등학교 2학년때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 친구들 돕기 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학교를 다니는 비용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생필품들을 내가 사서 직접 배송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산 것을 그 친구가 직접 받았다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서기현 (2231003)	독서클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나누며,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책이 주는 교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독서클럽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	박서영 (2431185)	이번 독서클럽을 통해 나는 세계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부분도 좋았다. 특히, 일상 속 실천이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세계의 문제를 더 가까이 느끼고 행동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다.
	3	정소희 (2331178)	이번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으며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에서 다룬 다양한 통계와 사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의 이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기아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고자 합니다.
	4	최윤미 (2331244)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으면서 기아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방조하는 모습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했던 소액의 기부조차도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단순히 미봉책으로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더 큰 그림 속에서 제 행동을 고민해야겠다는 다짐과 기부단체를 고르더라도 신중히 골라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		